



## LA한국교육원 3·1절을 맞아 '한인 미주 이민사 전시관' 재개관

- 한인 청소년 뿌리 교육 활성화를 위해 미주 이민사 전시물을 보완하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독립운동 전시물 이관받아 상설 전시
- 첫 번째 관람객은 뿌리교육 한국어반 학생 36명과 학부모

- LA한국교육원(원장 강전훈)은 교육원 1층에 위치한 ‘한인 미주 이민 역사 전시관’ 이 새 단장을 마치고 오는 3월 1일(토)에 재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인 미주 이민 역사 전시관은 미주 한인들의 이민 역사를 알리기 위해 2022년 2월 처음 개관하여 한인 2, 3세들과 한국어·한국문화를 배우는 학생들의 교육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 관련 교육자와 연구자들의 세미나도 개최되는 교육원의 명소입니다. 전시관의 작년 한 해 관람객은 3천5백 명이 넘습니다.
  - LA한국교육원은 늘어나는 관람객의 수요를 반영하고, 한인 동포들에게 뿌리(정체성)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시물을 교체하고 보강하는 공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3·1절을 기념하여 전시관을 재개관하였습니다.
- 전시관에는 1945년 이전의 미주 한인 이민사 전시물이 새로 설치되어 관람객들은 기존의 해방 이후 이민사 전시물과 연계하여 1903년부터 2020년대까지 미주 한인 이민 역사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지난해 LA에서 전시\*했던 미국 내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 사진물 30여 점을 이관받아서 상설 전시합니다. 관람객은 독립운동 사적지의 위치와 현재 모습을 관람하면서 미주 한인들의 역사가 미국 내 많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음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국외 교류 전시전(2024. 2. 29.~4. 12., LA한국문화원)

- 미주 한인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를 세우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쳐온 ‘미주 한인의 힘, 교육’ 전시도 구성되었습니다.

□ 재개관하는 한인 이민사 전시관의 첫 관람객은 교육원 뿌리교육 한국어반 학생 36명과 학부모들이며, 학생들은 전시 관람을 통해 3·1절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의미, 자유의 가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 LA한국교육원 강전훈 원장은 “미주 한인의 이민 역사에서 독립운동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이민사 전시관의 재개관을 통해 한인 청소년들이 조국을 잊지 않고, 역경을 극복한 민족 역사를 학습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붙임 사진 7부. 끝.

<b>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b>	담당자	LA한국교육원 부원장	이상범 (213-386-3112)
	담당자		



사진1 뿌리교육 아이들의 첫 관람 재개관식



사진2 재개관 이민사 전시관에서 삼일절 행사



사진3 전시를 관람하고 있는 첫 관람객 한인 어린이들



사진4 전시를 관람한 후 삼일절 계기교육 실시 모습



사진5 한지공예반-한지로 태극기를 만들어요



사진6 캘리그래피반-예쁜 글씨로 대한독립만세!



사진7 온라인 한글기초반-태극기 흔들며 대한독립만세!